

「“2005 중국(청도)산업시찰”을 다녀와서」

한국전기제품안전진흥원 이사 나경수
02)579-3291 Ksr@exesa.or.kr



이제 우리경제의 중국 의존도는 미국과 비교해 시 동등 또는 그 이상이 되어버렸다. 따라서 중국시장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향후 중국시장의 미래가 어떻게 변질하고 발전해 나갈 것인지 그 전개과정을 분석, 예측함으로써 우리가 나아갈 길을 모색해 보는 것은 이 시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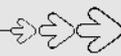
특히 다국적 기업들의 중국진출현황과 향후 시장확대 가능성에 대해 깊은 관심이 간다. 이것은 향후 중국의 변화에 대한 우리기업들의 대응전략을 찾아보고 적절한 로드맵 작성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다가올 10년 후 중국의 전개 변화와 이에 대한 기업과 개인, 공동체로서의 대응방안을

지금부터 모색하지 않으면 안된다.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무한정 팽창하는 중국의 모습에서 결코 밝지 않은 것은 많은 한국의 10년 후를 예측하여야 한다.

넓은 영토와 풍부한 인적 그리고 물질 자원을 바탕으로 중국은 동북아 물류중심지(hub)를 지향하는 한국의 자리를 빼앗을 공산이 크다고 분석되는 것이다. 해외진출을 뜻하는 '저우추취(走出去)' 전략에 따른 중국의 적극적인 해외 진출로 한국이 겪 임팩트(dip impact)상태로 전락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전문가도 있다.

또한 전반에 걸쳐 심각한 위기론과 기회론에 휘둘린 채로 10년 전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우리 국민의 중국에 대한 인식과 행동이 여전히 지적되고 있다. 이 대목은 우리가 깊이 반성해야 하는 부분이며, 중국을 현존하고 있는 그대로 보고 연구하여 대비하지 못한 이러한 우리의 나태한 태도는 미땅히 불식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지금은 큰 소리를 치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 자식들이 중국으로 뿔뿔히 가서 그 땅에서 허드렛일을 해야 한지도 모르는 참담한 미래를 불러올 수 있음을 모두가 짐작이나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중국산업시찰을 결심하게 된 것은 중국경제에 대한 특별한 관심 때문이었다.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있어 해외진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국내의 기업들에게는 큰 관심이 되고 있고 특히 청도는 한국 기업들의 진출 장벽이 낮아 시찰목적에 더없이 좋은 곳이라 생각되기 때문이었다.

청도는 700만 명이 넘는 인구에 한족 및 조선족, 회족 등을 비롯하여 총 38개의 소수민족으로 이루어 졌으며 한국인이 현재 5만여 명에 이를 만큼 우리에게 매우 친근한 곳이다. 바다를 끼고 있는 노산에서 나는 광천수로 세계적인 맥주 브랜드를 갖고 있는 물의 도시 청도, 분명 물이 풍부한 도시이긴 하지만 분명 섬이 아닌 산동반도에 자리 잡은 중국 대륙의 일부분인 이 지역에 왜 하필이면 청도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을까? 청도 서해안을 따라가다 보면 소청도라고 하는 조그마한 섬 하나를 발견하게 된다. 바로 이 작은 섬에서 청도라는 명칭이 유래되었다고 한다. 그곳 섬이 아주 푸르러 사람들이 이곳을 푸른 섬이라는 뜻의 청도라고 불렀다는데서 그 이름의 유래가 전해진다고 한다. 그러나 다른 재미난 설화로서 전해지는 이야기 속에서 그 명칭의 유래를 찾아 볼 수도 있다. 이 섬에 한 어부가 살았는데 하늘에 사는 선녀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 서로 이루어 질수 없는 비밀스런 사랑에 나누던 두 사람은 결국 신의 분노를 사게 되고 사랑을 이룰 수 없게 되자 선녀는 차라리 죽음을 택했다. 선녀가 죽은 이후에 선녀가 살아생전에 님을 기다리며 연주하던 비금소리가 이 섬 주위에서 들리곤 하여 사람들은 이곳에 아름다운 비금의 섬이라는 의미로 금도라고 불렀다. 그런데 이 금이라는 발음이 중국어로 칭이라는 소리와 거

의 비슷하여 사람들의 입을 타고 전해져서 청도라는 명칭을 갖게 되었다는 설도 있다

청도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곳에 인류가 거주한 시기는 6,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 민족의 선조와 깊은 연관이 있는 동이족이 여기에 살면서 다윈고우, 룡산 그리고 동웨이시 문화를 창조했으며 지모탄 지명이 붙으면서 청도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본격적인 역사는 1891년 청(淸)도광제(道光帝)가 현재의 청도에 교오(膠澳)라는 진지를 설치하면서 시작되었다. 1897년 11월에 이른바 삼국간섭의 댓가로 교주반도에 대해 독일이 권리를 주장하며 강점한데 이어, 1898년에 '교오조계조약'이 청과 독일 정부 사이에 체결됨에 따라 교오는 독일의 식민지가 되었다. 이후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후에 일본의 식민지로 통치 받다가 1919년 5.4 운동으로 촉발된 중국 민족주의의 홍기로, 1922년 2월 4일 당시 북양정부(北洋政府)와 일본 사이에 '해결산동현안조약'이 체결됨에 따라 같은 해 12월에 교오가 중국정부로 반환된다. 이후 1929년 국민당 정부가 교오를 점령한 후, 청도(靑島)시로 지명을 변경함에 따라 지금의 청도라는 이름이 생긴 것이다. 그러다가 개혁, 개방시대를 거치면서 심천 등 광둥에는 홍콩기업, 화교의 투자가, 복건에는 대만기업, 대련에는 일본기업의 투자가 집중된데 반해, 청도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했고, 이는 곧 청도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에서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장 인접한 산동성은 한국기업의 대중투자시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지역이며 그중에서 청도는 가장 유력한 지역으로 손꼽힌다. 한국기업의 청도 투자 진출은 양국 수교전인 1989년 토포톤전자를 설립한 것을 최초

로, 2004년 11월말 누계로 6,721개 항목, 계약액 U\$ 123.16억, 실무자액 U\$62.27억으로 정도시 전체외상직접투자자의 각각 44.3%, 35.9%, 3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독자기업이 81%이상으로 집계되고 있다. 투자항목을 살펴보면 방직, 기계제조, 식품가공, 피혁제품, 원구, 플라스틱 제품, 전자통신, 가구 등 40여개이며 정도 무역관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가공 수출업체의 다수 진출 및 농수산물 수입 등에 힘입어 정도 제1위의 교역파트너로 자리잡고 있다고 한다.

정도의 對韓 감정을 살펴보면 상당히 우호적이다. 정도는 우리나라 투자기업의 최대 집중지로 한때는 우리나라 대중투자자의 1/3이 정도 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을 정도였다. 2003년 기준 한국기업이 남부한 기업소득세는 5.4억원으로 정도시 외자기업 전체납세 총액의 18.4%를 점하였고, 한국기업 고용직원수는 30.2만 명으로 정도시 전체 외상기업 종사인원의 59.5%를 점하였다. 한편 한국기업의 수출실적은 210억 위안으로 정도시 외자기업 내외수출의 46.35%를 점하고 있다. 이외에도 한국기업은 선진 생산기술 및 경영관리 방식과

기업문화를 소개, 정도시의 기업구조와 질적 수준을 제고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에 따라 정도시 정부를 포함한 정도 시민들은 한국기업의 투자가 정도 경제발전애 결정적인 공헌을 했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어느 지역보다도 한국에 대해 우호적인 감정을 갖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한국인들의 일탈행위 등 때문에 조금씩 만한 감정도 나오고 있으며, 안타깝게도 특히 축구 등의 스포츠 경기에서 이러한 모습이 표출되고 있어, 정도의 우리나라에 대한 우호감정을 지속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4만 5일간의 짧은 기간동안 정도를 시찰하면서 현지 수출입 지원기관(정도자유수출무역공단, 상양구청, 정보산업국 등), 중국기업 (Factor 등) 그리고 한국의 현지진출기업 (우주전자) 등을 방문하여 현지의 전기, 전자산업에 대한 시장조사 및 상호협력을 위한 제원구축작업을 이루는 등 커다란 성과를 올렸다. 앞으로도 이들과 지속적인 우호적 협력을 진행하여 상호 발전의 결실이 맺어지길 기원한다. 

